“육교 철거 추세인데…” 광천 ‘에코브릿지’ 실효성 논란

보행시간 9분 단축 위해 150억 투입
시민 공감대 확보·타당성 의문 제기
시의회 “사전 수요조사도 없이 추진”
市도시교통정책 방향과도 상충 지적

광주시가 광천권역 특별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광천 에코브릿지(공중보행로) 조성사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행 시간을 기존 19분에서 10분으로 9분 단축시키기 위해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광주시의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시의회는 ‘광천 에코브릿지 조성사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광천 에코브릿지 조성사업’은 신세계백화점과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설 현대백화점 사이를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공중육교 설치를 골자로 한다.

총 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실효성과 시민 공감대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문제 제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시는 이번 1회 추경안에 공모비와 보상금 명목으로 2억1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원은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과정에서 확보되는 공공기여금 4천396억원(현금+현물)을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제시한 사업 효과는 백화점 간 도보 소요 시간을 기존 19분에서 10분으로 단축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1분당 17억원’이라는 고비용 구조가 드러난다. 단순히 보행 시간 절감을 위한 육교 신설에 1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시의회는 검토 보고서를 통해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나 구체적인 보행 수요 조사 등 사전 조사가 선행되지 않았으며, 실제 얼마나 많은 시민이 해당 구간을 도보로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조차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할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절차 없이 계획이 수립됐다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 1월 시의회가 주최한 ‘광천권역 교통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교통·도시 전문가들은 광주시의 에코브릿지 계획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당시 참석자들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 인프라를 상징하는 공중 육교보다는 지상 보행 체계(그라운드베이스)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며 광주시의 ‘대자보 도시(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확보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최근 10년 간 보행 이용률 저조 및 구조물 기능 저하 등을 이유로 총 15개소의 육교(동구 2개소, 서구 3개소, 북구 7개소, 광산구 3개소)가 철거됐으며 2021년엔 광주 최초의 중앙보행육교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에코브릿지’라는 새로운 육교 설치 사업 추진은 광주시 도시교통정책 방향과도 상충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의회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전문가와 시민, 자치구 간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변은진 기자

빛고을장학생 장학증서 전달식이 24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빛고을장학금’ 249명 총 2억2천600만원 지급

광주시, 상반기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대학생 200만원 등 평균 45% 상향조정

(재)빛고을장학재단은 24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2025년 상반기 빛고을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대표로 참석한 2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교육청, 자치구, 국가유공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중학생 61명, 고등학생 153명, 대학생 38명 등 총 249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분야별로는 학업 장려(중·고생), 지정 장학생(직업계고), 생계 곤란자, 5·18유공자 등이며 이들에게 총 2억2천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부터 장학금 지급액을 평균 45% 인상해 대학생은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에서 80만원, 중학생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오비맥주㈜ 이윤섭 호남권역 본부장과 양우천 광주공장장, 김태호 광주지점장이 참석해 장학금 1천500만원을 기탁했다. 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시·전남도회 전상철 회장과 손동철 부회장, 이기조 감사가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오비맥주㈜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총 6억7천만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시·전남도회는 2015년부터 총 9천만원을 기탁해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빛고을장학재단은 2024년까지 총 6천204명의 장학생에게 47억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학업 장려(대학생), 지정 장학생(대학생), 예·체능 특기생, 이주배경 청소년 등을 포함해 25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빛고을장학재단은 학업에 전념하는 미래의 주역을 위해 장학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청년 세대의 꿈과 도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전남RISE센터, 인재육성고속도로 세미나

전남RISE센터는 24일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배움마루에서 제3회 전남 인재육성 고속도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창업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세미나는 한국창업교육협의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도, 2025년 전남 RISE사업 창업혁신허브센터(목포대·순천대·동신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 혁신 중심의 전남RISE 사업 공유, 전문가 특강,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전문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김재정 기자

전남도, 지역경제 선도 유망 中企 모집

융자 한도 상향·세무조사 면제 혜택

전남도는 24일 “지역 경제를 선도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5년 유망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전남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지속한 중소기업 중 최근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제조업이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재무 현황, 기술력, 고용 창출 성과 등 다양한 평가 기준에 따라 대상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전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융자 한도 상향 및 이자 지원 우대, 판로 확대·수출 마케팅 등 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3년간 전남도 및 시·군의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경영 환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전남도의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유망 중소기업을 도 차원의 대표 기업으로 집중 관리하고 향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형성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유망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 주체”라며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세심한 정책을 지속 발굴해 유망 중소기업이 전남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글로벌시장에서도 활약하도록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3년부터 매년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871개 사가 선정됐다.

/양시원 기자

전남보건환경硏, 다중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다중이용시설의 환경수계를 중심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다.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직경 5㎛ 미만의 물입자가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퍼질 때 이를 흡입함으로써 감염된다. 사람 간 전파는 발생하지 않으며 주로 물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감염된다. 따뜻한 재순환수가 채워진 냉각탑 저수탱크는 레지오넬라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다.

이에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대형 건물, 대형 목욕탕, 노인복지시설 등 레지오넬라균이 비말(에어로졸)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환경수계를 중심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검사는 22개 시·군 보건소 협조를 받아 진행된다.

검사 결과, 레지오넬라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 해당 시설은 즉시 살균·소독 조치를 하고 균이 더 이상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소독과 재검사를 반복해야 한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냉각탑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목욕탕 등 수계시설의 냉온수 설비는 적정 수준의 소독제 잔류 농도를 유지하는 등 시설 관계자의 철저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시원 기자

CMYK